

제목

1. 1회. 흐응 난 몰라, 또 딸이래
2. 3회 내다 버렸으니 '바리'라고 부르지비
3. 4회, 퍼뜩 꿈깨 할아버지 제상을 차렸다
3. 5회, 신령님이 점지해주신 인연
4. 7회, 할머니, 나 빨간 땀기머리 아이 봤어
5. 8회, 열병을 앓은 내게 남다른 신통력이
6. 10회, 환갑의 흰등이가 새끼 일곱을 낳았다
8. 11회. 누이 나 제대했소, 형님은...
9. 12회, 외삼촌은 신나게 손풍금을 타곤 했다
10. 15회. 조선족 미꾸리 아저씨가 오자 반가움에
- 11, 16회, 이거이 남선에서 온 쪼코빵이다
- 12, 17회, '나랏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기근이
- 13, 18회. 굶어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14. 19회. 바리야! 나 죽을 뻔했어
15. 23회. 집을 비워야겠다 이 말입네다
16. 24회, 할머니 짐싸서 강 건너 가십세다
17. 25회. 강을 건너 중국땅에 도착했다
18. 27회. 공안단속을 피해 산에 움집을 지었다
19. 29회. 아버지는 죽은 현이를 둘둘 말았다
20. 30회, 겨울을 나자 아버지는 먼길을 떠났다
21. 31회. 밥 해먹구 빨래허구 하던 그 물이 약수다
22. 32회. 무심한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23. 34회. 칠성이와 강을 건느고 산을 넘었다
24. 35회. 이년, 남의 집엘 함부루 들오니?
25. 37회. 불지옥 산속을 기듯이 헤치고
26. 38회. 칠성이마저 죽고 세상에 홀로 남았다
27. 40회. 발마사지 업소에서 잔심부름을 했다
28. 41회. 상언니와 금반지를 찾아준 뒤 차츰
29. 47회. 여기서 못살아, 해외루 나가야겠어
30. 48회. 형부는 밀려나고 언니와 나만 배에
31. 50회. 뱀처럼 짐 틈바구니에 몸을 숨겼다
32. 52회. 49일 고행을 하면 돌아갈 수 있노라
33. 54회. 늘어진 시신들은 바다에 내던져지고
34. 55회. 내 뼈를 집어들고 춤을 춘다
35. 57회. 열여섯 살 가을 런던에 도착했다
36. 68회. 에밀리도 나와 비슷한 소질을 ...
37. 71회. 수천명의 흑인들이 푸대자루를 지고
38. 79회. 너 며칠만 나가 있거라
39. 80회. 알리야 바리를 데리고 가거라

40. 89회. 신이여 두 사람을 축복하소서
41. 90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축복하며
42. 91회. 아가야 우주 섭리는 하나란다
43. 95회. 이것이 긴 이별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44. 96회. 알리는 카불에서 전화까지 했었거든
45. 99회. 형을 못 만났어요? 헤어졌소, 만나자 마자
46. 100회. 남편이 살아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47. 101회. 나는 그네의 웃음을 기억해 낼 수가 없었다.
48. 109회. 나두 떠나올래. 아니, 할 일이 남아있지 않네?
49. 111회. 당신들은 왜 거기 함께 있나요?
50. 114회. 나는 세 송이의 흰꽃을 품에 넣는다
51. 121회. 나는 새로 아기를 가졌다
52. 예고기사, 바리의 불안한 잠